



13일 오후 제주 오라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두 번째 시범경기 3회말 KIA 박기남이 넥센 유한준을 2루에서 아웃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반갑다! 야구 제주도가 들쭉

전북출신 여고생 유은총 첫 태극마크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전북출신 고교생 유은총(18·군산 중앙여고·사진)이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을 뚫고 처음으로 탁구 일반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유은총은 12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끝난 2011년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11승3패(승점25)의 성적으로 윤선애(포스코와위)와 박미영(삼성생명)에 이어 B조 3위에 올라 조 5위까지 뽑는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송마음(대우증권)과 박영숙(한국마사회)이 나란히 10승4패(승점 24)를 올리며 각각 B조 4-5위로 대표팀에 합류했으며 A조에서는 문현정(삼성생명)이 뒤심을 발휘하며 12승1패(승점 25)로 조 1위로 올라섰다.

이어 서효원(한국마사회)과 최문영(단양군청)이 각각 10승3패로 2-3위를



했고 석하정(대한항공)은 9승4패, 조유진(삼성생명)은 8승5패로 각각 4-5위에 들었다.

남자부에서는 중

국 동포 출신 정상은(삼성생명)이 13승2패(승점 28)로 A조 1위에 오르며 2009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대표 자리를 되찾았다. B조에서는 김민석(이삼공사)이 13승2패(승점 28)로 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여 아시안게임 대표에서 탈락했던 간판스타 유승민(삼성생명)이 12승3패(승점 27)에 조 2위로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밖에 이상수(삼성생명)와 서현덕(삼성생명), 정영식(대우증권) 등 차세대 주자들과 조연래(농심삼다수), 김정훈(한국인삼공사), 최현진(대우증권) 등 중진급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日프로야구 세이부·지바 롯데 시범경기 취소

지진·해일 여파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지진·해일 여파로 일본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 구단이 안전 상의 이유로 13일 잔여 시범경기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세이부 구단은 15일부터 홈구장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돔에서 치를 예정이던 오릭스, 주니치(16일), 소프트뱅크(17일), 요코하마(20~21일)와의 시범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사이타마현은 지진의 직접 영향권이던 도쿄에서 북쪽으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김태균(29)이 속한 지바 롯데 마린스도

15~16일 홈구장 지바현 QVC 마린필드에서 열릴 시범경기를 취소했다.

반면 '전국구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14일 기후현에서 열리는 한신 타이거즈와 시범경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 구단 고위 관계자는 "기후현은 진앙에서 멀고 관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경기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시범경기 수익금은 전액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민을 생각하면 야구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때라도 야구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성격의 경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구름관중...KIA, 오라야구장서 넥센과 2연전 1점차 장군명군

그라운드에도 봄이 찾아왔다.

12일 제주 오라야구장을 비롯한 전국 4개 구장에서 시범경기가 시작되면서 프로야구가 가지개를 켜다. 뜬직한 마운드로 챔피언 탈환에 나선 KIA는 제주도를 찾아 넥센 히어로즈와 2연전을 가졌다.

지난 2008년 SK와 두산의 경기이후 3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이자 KIA에게는 1984년 이후 27년만의 제주도 나들이.

KIA의 방문에 오라야구장은 이틀동안 1만3000명의 관중이 다녀가는 등 제주도의 주말은 프로야구 열기로 뜨거웠다.

시범경기 개막전이 열렸던 12일에는 70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13일에도 6000여명의 관중이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외야 좌석이 없는 오라 구장이 8800석임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인기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제주도 대결에서 KIA와 넥센은 1승1패씩 주고 받았다.

12일 개막전에서는 KIA가 루키 홍건희의 배짱투를 앞세워 4-3으로 1점차 승리를 거뒀고, 13일에는 유한준의 2타점 적시타를 내세운 넥센이 4-3으로 이겼다.

12일 시범경기에서만 시행되는 승부처기

가 전개되면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가 됐다.

KIA가 0-2로 뒤지던 8회초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따라 붙은 뒤, 9회초 1사 1·3루에서 나온 이영수의 희생플라이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9회말 차점민이 넥센 타선을 삼자범퇴로 막으며 경기는 10회 연장에 돌입했다. 결국 프로야구 역사 7번째 승부처기가 벌어졌다.

발 빠른 윤정우와 홍재호를 1·2루에 세운 KIA는 상대 폭투와 이현근·김다원의 연속안타로 10회초 2점을 뽑아냈다. 10회말 루키 홍건희를 마운드에 세운 KIA는 알드리지의

적시타로 1점을 내주기 했지만 삼진 세 개로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1점차 승리를 거뒀다.

13일 경기에서는 넥센이 역전극을 펼쳤다.

2-2로 맞서던 7회말 박정태가 넥센 유한준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면서 2-4 역전을 허용했다. KIA는 9회 1사 1·2루에서 김선빈의 도루로 1·3루를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이영수의 땅볼로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3-4, 1점차 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부터 로페즈와 용병 콤비를 이룬 투수 트레비스는 선발로 등판해 4이닝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만형 이종범



KIA의 최고참 이종범(41)과 루키 홍건희(19)가 '제주도 스타'로 등극했다.

KIA는 제주 시범경기에서 구름 관중을 동원하며 전국구 인기를 과시했다. 인기몰이에 나선 KIA 선수들 사이에서도 22살 차이의 만형 이종범과 막내 홍건희는 변함없는 인기와 감각 실력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다.

식지 않은 인기로 야구팬들 사이에 '종범신'으로 통하는 이종범은 이번 시범경기에서도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12일 선발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이종범은 8회초 1번 신종길의 대타자로 출전했다. 이종범이 방망이를 드는 순간부터 관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타석에 선 이종범은 볼넷을 고르며 다시 한 번 환호성을 이끌어 냈다.

경기전에도 이종범은 제주도 현지 언론을 비롯해 각종 언론사의 인터뷰를 소화하느라 가장 분주했다. 이종범은 "제주도에서 마무리 훈련을 해본 적은 있지만 경기는 처음이라 기분이 남달랐다"며 "좋은

나이는 22살 차이...인기는 '막상막하'

날씨 속에 팬들의 응원을 받고 경기를 하게 돼 기쁘다"고 제주도 방문 소감을 밝혔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화순고 출신의 루키 홍건희가 야구팬들 앞에 첫 선을 보인 데뷔전. 승부처기가 진행된 10회말 4-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홍건희는 첫 상대 유한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다음 타자 용병 알드리지의 빔맞은 타구로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빠져나가며 적시타가 됐다.

엄청난 중계 플레이로 1사 2·3루, 공 3개로 지석훈을 상대로 두 번째 삼진을 잡은 홍건희는 이승용에게 볼넷을 내주며 역전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홍건희는 2사 만루에서 고종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장을 들쭉이게 했다.

홍건희는 "많은 관중들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던지는 상황이 긴장되지는 않았다. 포수 차일목 선배를 믿고 편하게 던졌다. 좋은 투수 선배들이 많지만 열심히 해서 꼭 개막전 엔트리에 들고 싶다"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막내 홍건희



시범경기 클리블랜드전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간판 타자인 추신수(29)가 이틀 연속 2루타를 때리고 타점 1개를 수확했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의 굿이 불파크에서 열린 로스엔젤레스 에인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1안타를 때리고 1타점을 올렸다.

1-0으로 앞선 1회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2루수 병살타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무사 2루 상황의 두 번째 타석에서 우익수 쪽으로 총알 같은 2루타를 때려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전날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좌익수 쪽 2루타에 이은 2경기 연속 2루타다.

7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시범경기 타율을 0.227로 약간 끌어올렸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해기타'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김현섭 남자경보 20km 한국신기록 우승

아시아경보선수권대회

한국 남자 경보의 '간판' 김현섭(26·삼성전자)이 2011 아시아경보선수권대회 20k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다.

삼성전자가 육상단은 김현섭이 13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미에서 벌어진 레이스에서 1시간19분31초를 찍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작성한 한국기록(1시간19분36초)을 5개월 만에 5초 단축한 김현섭은 8월 대구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A 기준기록(1시간22분30초)도 넘어섰다.

또 해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1시간19분대에 진입, 안방에서 8월에 열리는 대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전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3년만의
대세일 30%
 3월 19일까지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앤틱 식탁·좌탁 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1.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2. 160만원 상당 이태리 친환경 라텍스 무상증정 (300만원 이상 침대에 한함 180×200×25cm 대형사이즈)

화정동 아울렛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홍스페이스 아울렛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 (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홍스페이스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